

2025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섬김 특별 집회 표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 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이상이다.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권위에 관한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섞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1

살아 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이상

성경: 마 2:1-12, 민 24:17, 창 1:14-19, 단 12:3,
계 1:16, 20, 2:1, 28, 3:1, 22:16, 벧후 1:19, 창 22:17, 유 12-13

- I.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 2:2)라고 말했다. 이것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오”라고 한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였다. 이 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A. 박사들은 “우리가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별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다.
 - B.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한 별은 이 현자들에게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고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았지만(마 2:4-6),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다.
 - C.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관한 문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미 5:2),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이상을 받았다. 결국 이 별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마 2:1-12).
 - D.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지만(말 4:2), 엄격히 말해서 그분은 밤의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별로서 빛을 비추신다(계 2:28). 별은 밤에 빛나지만, 이것은 낮이 오고 있음을 가리킨다(롬 13:11-14).
 - E.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별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깨어 있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섯별이실 것이다(계 2:28, 22:16). 나중에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서 나타나실 것이다(말 4:2, 비교 마 13:43).
- II.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살아 있는 문제임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 A. 별은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곳들이 아닌 이 교도의 땅에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보여 주는 별이 있었다.
 - B. 단지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미가서 5장 2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놓칠 수 있다.
 - C. 별은 성경에 대한 낡고 죽은 교리적인 지식 곧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계시, 살아 있는 이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 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이상이다.

- D.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거리와 그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선의, 살아 있는 별이 필요하다.
- E. 그 박사들은 살아 있는 이상을 받았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 마 2:16.
- F.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물었을 때, 성경은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해 준다 — 마 2:3.
1.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했지만, 반대로 당황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구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 비교 잠 4:23.
 2. 만일 주님을 믿는 누군가가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그의 내적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 딤후 4:8, 막 12:30, 고전 2:9.
 3.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한다 — 딤후 4:8, 딤후 2:13, 계 2:28, 22:20, 마 24:40-44, 25:8-13.
- G.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힌 후(마 2:4-6)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8-9절),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마 2:10).
1.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살아 있는 이상은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한다.
 2.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올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고(말 2:7),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이들이었다(스 7:6).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마 2:5-6),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었다.
 3.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신약의 길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 요 5:39-40, 사 45:15, 출 33:11, 14, 비교 고후 5:16.
 4. 성경 지식을 쌓기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 — 마 2:10-14.
 5.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마 2:12).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 곧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Ⅲ.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들이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이 된다 — 단 12:3, 비교 창 22:17.

- A.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 있는, 최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른다 — 행 26:16-18, 골 1:17하, 18하.
- B.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다 — 민 24:9, 창 12:2-3, 22:17.
- C. 살아 있는 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결과 셋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신다. 만일 우리가 성경

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섯별로서 실지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의 변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 벧후 1:19, 요 6:63, 계 2:28, 22:16, 딤후 4:8.

1. 섯별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이른 아침이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성경과 함께 사역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 아 7:12, 시 5:1-3, 57:8-9, 59:16-17, 63:1-8, 90:14, 92:1-2, 108:2-3, 143:8, 출 16:21.
 2.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섯별로 은밀히 주심으로 써, 떠나신 지 오랜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 살전 5:6, 계 2:28, 3:2-3, 16:15.
- D. 살아 있는 별들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하다.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들을 생생히 살아 있게 하시고 강렬하게 빛나게 하신다 — 계 3:1, 4:5, 5:6.
- E. 살아 있는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달자이자 하나님에게서 온 신선한 메시지가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신선하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계 1:16, 20, 2:1, 말 3:1-3.
- F. 살아 있는 별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성찰'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자기들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과 같고, 그 결과 '힘 있게 돌는 해'와 같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 사 5:15-16, 20, 31, 단 11:32, 마 13:43.
- G. 살아 있는 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어둠 속에 거하는 동안에도 빛이 있는 이들이다 — 사 50:10-11, 시 139:7-12, 23-24.
1. 자신을 위해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자신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 사 50:11.
 2.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 사 2:5.
- H.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가 이루어진 넷째 날에 창공에 두어진 별들로 예표되는데, 이 넷째 날의 별들은 빛을 비춤으로 다스린다. 빛 비춤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다 — 창 1:14-19.
1. 변형의 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신 것은 왕국이 능력으로 임한 것이었다. 이러한 빛남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재이다 — 마 17:1-8, 막 9:1-8.
 2. 모든 축복과 누림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빛남이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빛 비추심으로 확산되신 것이다.
 3.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이다. 그분께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러한 비춤 아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 I. 부정적인 방면에서 어떤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 유 12-13.
1.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은유는, 변덕스러운 교사들 즉 변절자들이 하늘에 속한 계시로 말미암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견고히 머무르지 않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오늘날 변덕스러운 변절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지만, 장래에는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마련되어 있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3. 누구든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교회들의 섞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참된 별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이들,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
 4. 오늘날 살아 있는 별이신 주님과 살아 있는 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다(계 1:11, 20).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는 몇몇 살아 있는 별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 J.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길에 항상 지켜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 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새롭게 계속 발견하여 살아 있는 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비교 엠 5:8-9, 렘 15:16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창 12:3상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민 24:9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봉사자들과의 교통, 12장, 299쪽:

주님께서 보실 때 집회를 비평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는 누구냐? 누가 너에게 나의 교회의 집회에 대한 표준을 만들 권리를 주었느냐?” 집회를 비평하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그 집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집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자비로운 빛 비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97-98쪽:

1940년대 초 상하이에서 있었던 어떤 기도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시는 바대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집회에서 교회의 낮은 상태로 괴로워하던 체험이 있는 어떤 동역자 자매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다. 기도를 할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태가 가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니 형제님은 주님께 찬양을 발했고 교회는 결코 약하거나 낮지 않고 항상 높은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니 형제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발람의 예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왔다.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발라에게 고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 발람은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면서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네.”(민 23:21) 더 나아가 민수기 24장 5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 이 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분은 오직 선함과 공평함과 아름다움만을 보신다. 오늘날 교회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교회를 낮고 죽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수록 여러분은 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교회생활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에 관해 좋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자신을 두게 될 것이다. 나는 교회생활 안에 있어 온 이래로, 교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반대로 교회를 가련하며 낮고 죽어 있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었다. 교회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며,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던 이들은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의 체험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간증이다.

때때로 내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신다. 즉시 나는 주님께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더 말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된다.

교회에 관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가? 여러분의 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영원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는 교회가 영원 안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대적의 모든 비난은 거짓말이다. 교회를 가련하거나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짓말을 표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외적인 상황은 거짓이다. 교회가 냉랭하고 죽어 있으며 낮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회는 높여진 것이며, 매우 생생한 것이다. 나는 발람의 예언에 관한 니 형제님의 강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해마지 않는다. 그 말씀은 교회의 현 상태에 관한 나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나는 전혀 다른 빛 안에서 교회를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더 깊이 보지 말라. 민수기에 있는 발람의 말에 의하면, 주님은 야곱에게 있는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통찰력이 있단 말인가? 성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을 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 믿겠는가? 주님의 시야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시야인가?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함께 선다면, 여러분은 축복에서 저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하기를 바란다.